

17

도내 20대 유권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이다. 20대 이하 유권자 수는 전북만 24만6천412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히 16.7%였다. 젊은층이 속속 빠져나가며 20대 유권자도 그동안 감소해왔다. 지난 2002년 기준 시 도내 20대 젊은이는 32만2천600명(주민등록 기준)이었다. 이 통계엔 19세 유권자 수가 빠진 것이지만 10년 전과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인다. 여야 전북선대위는 젊은층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27

60대 이상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60대 이상 유권자 수는 40만5천159명으로, 18대 대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27.3%였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60대 이상 인구도 늘어났다. 10년 전인 2002년의 주민등록 인구는 60세 이상이 32만4천100여 명에 그쳤으니 올해엔 8만 명가량 더 불어난 셈이다. 보수적 성향을 보이면서도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이랄 수 있는 노년층 표심은 여야 전북선대위의 공략 포인트이기도 하다.

50

새누리당 전북선대위와 민주통합당 전북선대위 후보 득표율로 내건 30%와 80%의 차이이다. 새누리당은 특정정당의 독주를 막아야 전북이 살 수 있다며 박근혜 후보의 30% 지지를 호소해 왔고, 민주통합당은 전북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80% 이상의 지지를 강조해왔다. 양당 전북선대위의 지지를 합산은 110%. 전북은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한 터여서 어느 정당이 목표치에 근접할지 주목된다.

80

중앙선관위가 지난 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의 비율이다. 선거와 통계 전문가들은 통상 적극투표층보다 실제 투표율은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이번 18대 대선의 투표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02년 대선 때 예측조사는 80%였지만 실제 투표율은 10% 정도 떨어졌다. 전북은 역대 선거에서 전국 투표율보다 약간 높은 수치를 보여왔다.

숫자로 본 18대 대선

19일 치러지는 18대 대선은 전북 유권자들에게 많은 숫자를 보여줬다. 이들 숫자에는 대선의 치열한 경쟁 구도가 녹아 있고, 선거판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준도 담겨있다. ‘숫자로 본 18대 대선’을 훑어보며 올바른 선택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캐스팅 보트’ 전북

초박빙 ‘1%의 싸움’ 전망

18대 대선 유권자 148만2705명의 전북이 전체 대선 결과를 지배할 전망이다. 12·19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초 박빙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6일간의 선거 기간 동안 새누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박, 문 후보가 오차범위 내 예측불허의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데는 정치권 모두 동의하고 있다. 전북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지지후보에 따라 전체 대선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1%의 싸움’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대선이 ‘1% 싸움’ 성격을 띠면서 전북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가 전북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도 대선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전북 대선판이 요동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북에서 박근혜 후보가 지난 17대 대선 때의 이명박후보의 9.0%를 얼마만큼 넘어서 득표를 올리느냐에 따라 5년 재집권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김경아 대변인과 중앙 선대위의 장영호 홍보팀장은 “전북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경쟁이 아닌, 박근혜 후보 자신과의 싸움”이라며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지지는 2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대선승리의 매직넘버로 ‘40만 표’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전북에서 몇 만 표를 더 얻을 경우 대선 승리는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오직 전북에서 투표율과 전령을 치렀다. 전북에서 민주당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새누리당 박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춘석 도당위원장은 18일 “민주당 문후보가 대선의 승기를 잡으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의 90% 안팎의 지지율이 터이상 꿈이 아니다.”라며 “전북이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5대 대선 당시 전북의 투표율 86%와 17대 대선 67%를 비교하면 유권자 수만도 28만 표 차이가 난다. 다시말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북의 표심을 단순히 박, 문 후보를 지지하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선택이 아닌 대선 성패를 결정하는 ‘매직넘버’로 해석 하고 있다. 지난 11월27일 부터 시작된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후보가 전북을 방문하고 각 당이 사활을 건 싸움을 펼친 것도 이번 대선에서 전북의 역할론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전영남기자 hnjeon@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도당 선대위원장은 18일 도의회에서 전북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문을 발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박 후보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왼쪽). 민주통합당 전북선대위는 18일 도의회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투표에 꼭 참여하라며 도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 “참여정부 호남 홀대 vs MB정부 민생 파탄” 민주

여야 선대위, 도민에 지지 호소

여야 전북선대위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8일 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전북선대위는 “참여정부가 호남을 홀대하고 전북을 낙후시켰다”거나 “MB정부 5

년 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을 불렀다”며 날을 세우며 도내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운천 새누리당 전북선대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정부는 92%의 물표로 만든 정권이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며 “문재인 후보는 당시 비서실장을 하면서 호남인사 홀대 장본인

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이 더 이상 민주당 외발통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여야 쌍발통 시대를 열어야 전북이 살 수 있다”고 박근혜 후보 30% 지지를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전북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

탄을 불러왔다”며 “지난 5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과 정의, 참여와 연대, 서민과 민생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권하에 낙후되고 소외된 전북을 위해 진정한 일할 후보는 문 후보”라고 말했다.

박기홍기자 khpark@

새누리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민주당 “전통문화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여야, 핵심 전북공약은?

18대 대선 선택의 날이 밝았다. 도내 유권자들은 향후 5년의 국운을 짊어질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기 위해 전북공약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전북공약 7개 분야를 발표하고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우선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선언, 새특별 개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밝혔다. 또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을 제시해 앞으로 전북이 전통식품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융복합 산업 성장에 지원을 약속했다.

새만금과 서해안권을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국

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부안~고창 간) 건설’ 추진과 자연 생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추진도 공약으로 포함됐다. 나 머지로는 익산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반 사업인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 사업 지원’과 새만금 개발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전북 동부 내륙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국가 100대 신성장 동력사업인 ‘전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3개 공약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전북 지역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융복합부를 포함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이전을 포함, 전북을 서울·영남·호남을 잇는 3각 금융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 개발의 통합적인 새만금 개발청 설립과 안정적 국비 확보를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군산공항 확장, 동서횡단 철도, 동서남북 교통망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밝혔다. 한국적인 전통이 살아있는 전북에 전통문화와 상품의 연구개발, 생산, 유통, 소비가 집적화된 전통문화 융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전통문화 산업화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아시아 농식품산업의 중심도시 육성, 신재생 에너지 벤처사업 육성지구 조성, 지리산·덕유산권 휴양·힐링 거점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등을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고은기자 rhdms@

새누리당-민주통합당 전북공약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지원	국민연금공단 완전 이전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아시아 농식품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국도 77호선 연결 부창대교 건설 추진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협력 허브로 육성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사업 추진 지원	전통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를 위한 관련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벤처산업 육성 지원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지리산·덕유산·내장산권 휴양 힐링거점 조성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고도 르네상스 사업 추진



전북선관위 “오늘 선거활동 일절 금지”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선과 익산시·남원시의원보궐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18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19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외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 심야 또는 새벽 등 취약시간에 불법인쇄물을 아파트단지나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첨부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관위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을 총 동원하여 주태가, 버스정류장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감

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선거 당일에도 투표소 입구 및 주변에 질서유지 요원과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기홍기자 khpark@

KPC 한국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축 제9회 2012 전라북도 정보화실무능력경진대회 시상식

대한민국 IT 자격,
KPC가 선도한다!

당신의 identity
KPC IT 자격이 함께 합니다

Identity [aidéntəti] : 신원, 신분, 정체, 존재
나의 identity란?
• 나를 통해 타인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목표 이미지로써, 나와 관련하여 타인들의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심어주고 싶어하는 바람직한 연상들의 결합을 의미
• 나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자 타인으로부터 나를 차별화하는 기호의 역할
• 나를 표현하거나 인지시키는 나만의 독특한 연상 이미지의 집합

한국의 자격에서 세계의 자격으로, 국내의 identity를 넘어서 글로벌 identity까지
정보기술자격(ITQ), 그래픽기술자격(GTQ) 국가공인자격 최초로 국제 인증 획득

한국생산성본부 자격개발 · 인증본부 / 국번없이 1577-9402 (콜센터)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적선동) / www.kpc.or.kr